



## 원효의 (元曉) 대승기신론소 (大乘起信論疏)

Korean Translations of Wonhyo's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

---

저자  
(Authors) 최유진  
You Jin Choi

출처  
(Source) [철학연구 38](#), 1996.06, 241-245 (5 pa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38](#), 1996.06,  
241-245 (5 pages)

발행처  
(Publisher) [철학연구회](#)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22803>

APA Style 최유진 (1996). 원효의 (元曉) 대승기신론소 (大乘起信論疏). 철학연구, 38, 241-24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19 15:0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元曉의 大乘起信論疏

최 유 진 (경남대)

<대승기신론소>는 우리나라 불교사상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의 하나인 원효의 대표적 저술로 원효의 근본 사상을 잘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저술이다. 따라서 번역서가 상당수 있고 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본 서평에서는 다음의 5종류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 이외에도 金呑虛의 懸吐譯解 起信論(華嚴學研究所, 1981)이 있고 전역은 아니지만 반 정도를 번역한 김덕수의 번역(佛敎의 哲學思想: 大乘起信論 元曉疏別記 譯解 1, 平和堂印刷社, 1991)이 있는데 김탄허의 역은 시간이 촉박하여 구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김덕수의 번역은 전역이 아니라서 제외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번역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1. 成樂勳 譯, 大乘起信論疏, 韓國의 思想大全集 1(pp.39-132), 同和出版社, 1972
2. 동국역경원, 大乘起信論疏, 한글대장경 156(pp.21-248), 동국대학교, 1976
3. 李箕永 譯, 大乘起信論疏 別記, 韓國의 佛敎思想(pp.29-137), 三省版 世界思想全集 11, 三省出版社, 1976
4. 張空波 譯, 大乘起信論疏并別記, 國譯 元曉聖師全書 卷五(pp.23-769), 元曉全書 國譯刊行會, 1988
5.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별기, 一志社, 1991

고전의 번역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고전의 정확한 번역이 없으면 우리 학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번역에서 중시해야 할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보고 그 기준에 따라 위의 번역서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첫째,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일 것이다. 원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단순한 언어적인 능력뿐이 아니라 전체 사상적인 맥락의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번역이 되려면 출전(出典)을 찾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원효가 인용하고 있는 경전들이 어떤 경전들인지 그리고 올바르게 인용되고 있는지 또 그 인용이 해당 경전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말해지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현대 한국어로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원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만 이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번역을 잘하려면 한국어를 잘 해야 된다는 말이다. 특히 한문 원전의 번역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가 있다. 한문 용어를 그대로 쓴 번역은 의미가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해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알아보기 쉽도록 되어 있는가도 문제이다. 번역된 부분이 원서의 전체에서 어떤 부분인가가 알기 쉽게 되어야 한다.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의 경우는 그것이 기신론에 대한 주석이므로 그 본문과 원효의 주석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여서는 곤란하다.

넷째, 전체에 대한 완전한 번역이어야 한다.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은 슬쩍 빼버리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먼저 성낙훈의 번역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자. 이 번역은 필자가 서평의 대상으로 삼은 번역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이기영의 원효사상1(홍법원, 1967)에는 대승기신론소와 별기가 거의 다 번역되어 있으므로 최초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술의 형식이고 번역서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서평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성낙훈의 번역에서는 현수의 소와 장수의 기를 같이 참조하면서 번역을 한 것이 눈에 띈다. 정확하고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단 주석까지 번역하여 주석을 달아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주석도 비교적 충실히 달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 뒷부분으로 가면 주석을 거의 붙이지 않고 있다. 앞부분에만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앞부분에만 주석을 붙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아마도 시간이 촉박하여 그러한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갖춘 번역,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되려면 뒷부분까지도 어려운 용어나 기타의 것에 대해 주를 붙여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 이 번역의 문제는 빠뜨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군데군데 번역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번역의 대본이 어느 판본인지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전의 번역에서는 판본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일일이 여러 판본을 대조하는 작업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판본을 번역의 저본으로 삼았는가를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번역에서의 문제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정확한 번역이 되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몇 군데 오역이 눈에 띈다는 정도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글대장경의 번역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한글대장경의 번역에서는 번역자가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첫째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다. 번역자가 누구인지,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했다면 누가 책임자이고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다. 편집인이 대한불교조계종 역경위원회라는 것밖에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다. 둘째로는 번역의 대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고전의 번역에서는 판본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일일이 여러 판본을 대조하는 작업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판본을 번역의 저본으로 삼았는가를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셋째로는 대승기신론의 본문과 원효의 소와의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다. 원효의 말인지 대승기신론의 원 저자의 말인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또 갑자기 ‘소’(p.37) 또는 ‘기’(p.38)라는 표기 아래에 현수(賢首)의 소(疏)(현수의 소는 본래 제목이 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이므로 “현수의 소에”라는 표현도 조금은 부정확한 것이 아닌가 싶다.)와 장수(長水)의 기(記)를 인용하여 번역하고 있는데 원효의 소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참고로 번역한다는 말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로 구체적인 번역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해보자. 처음 앞부분에서는 주석도 붙이면서 번역을 했는데 좀 지나면 그러한 것이 일체 없다. 번역 용어도 원래의 용어를 좀더 쉽게 풀어쓰려는 노력이 거의 없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번역하는 가운데 빠뜨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띈다.

이 번역은 성낙훈의 번역과 거의 같은 부분이 많다. 현수와 장수의 주석을 인용한 것도 그렇고 용어 해설을 붙인 것까지도 그러하다. 그러나 문장은 조금씩 틀려서 동일한 번역이라고고는 할 수 없다. 동일 역자가 문장 표현만 조금 바꾸어서 다시 번역을 한 것인지도 알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많이 성낙훈의

번역에 의존하고 있다. 새로 번역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 힘든 번역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하겠다.

이제 이기영의 번역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이기영은 일찍이 원효사상<sup>1</sup>을 펴내고 원효의 저술에 대해서 많은 연구 논문과 번역서를 펴낸 원효 연구의 전문가이다. 따라서 번역자로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특히 고전의 번역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학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기영의 번역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풀어쓴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의미 내용의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번역에 대해서도 좀더 쉬운 설명과 자세한 주석을 요구하고 싶다. 번역의 대본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것도 또한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적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번역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 또 이 번역은 소와 별기를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둘 사이의 구분이 잘못된 곳도 있다.

다음으로 국역원효성사전서의 장공파의 번역을 보도록 하자. 이 번역에서는 번역의 대본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번역서들도 다수 있으므로 대본을 밝힌 것이 눈에 띈다. 중요한 용어에 대한 주석을 상당수 붙이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부분에 대한 주석은 없는 곳이 많다. 사진 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면서도 정작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이 없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구체적인 번역을 검토해 보면 잘못된 번역이 상당수 눈에 띈다. 최초의 부분부터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번역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오역이 눈에 띈다.(예를 들면 p.148; 以是一心二門之內 無一法義而所不攝故의 번역을 “일심과 이문의 속에는 하나도 법이라는 의미를 띤 것이 없고, 또 무엇이라도 포섭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반대의 의미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一心二門의 안에는 하나의 법이나 의(義)도 포섭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정도로 번역하여야 한다.) 번역이 시간적으로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앞의 번역들을 참조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앞의 번역을 참조하지 않았다면 번역에서 성의가 부족한 것이고 참조하였다면 그것은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 번역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 (처음부터 오역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참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전의 번역을 참조하는 것은 번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성의의 문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정희의 번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은정희의 번역은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다. 이 번역은 먼저 기본적인 면에서 충실한 것이 눈에 띈다. 번역의 대본을 명확하게 밝혔고 충실한 주석을 단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역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은 것은 원효가 인용한 경론을 그 출전을 찾아 밝혔다는 점이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번역을 함에 있어 출전까지도 찾아내는 것이 좋다고 말은 하지만 이 작업을 처음으로 할 때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은정희는 번역의 구체적인 면에서는 이전의 번역을 참조하고 자신의 번역과 이전의 번역의 차이도 역주에서 밝혀 놓았다. 이것도 우리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나중에 나오는 번역이라면 당연히 앞의 것을 참고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은정희의 번역은 이제까지의 번역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번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두 가지 더 욕심을 부려 보자면 별표에서 밝힌 원효의 기신론소 별기의 구조를 번역서의 내에서도 설명을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의 논의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아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주석에서 용어 해설과 출전, 번역의 상이점 등을 밝혀 놓았지만 단지 용어 해설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55쪽의 주 167)과 같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주석이 많았더라면 하는 욕심을 부려 본다.

몇 종류의 번역서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보았다. 만족할 만한 번역은 은정희의 번역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수준의 번역이 우리나라 고전의 전 분야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학문의 수준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원전에 대하여 새로운 번역을 한다면 그 이전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번역 작업을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학문적인 축적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전의 번역이나 연구 성과는 도외시하거나 또는 참조했으면서도 안 한듯이 하거나 하는 태도는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다. 고전의 번역은 단지 언어적인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만이 올바르게 해 낼 수 있는 어렵고도 의미깊은 작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학문의 지속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고전에 대한 수준높은 번역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야에 따라서는 번역 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번역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번역을 경시하는 풍조는 이제는 버려야 할 유산이다.